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흔적들

율령체제와 조공책봉체제에 관하여

20200422 이수빈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은 현대 한중일 삼국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유가같은 종교와 사상 그리고 한자가 그 예이며,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이다. 역사는 현대 문화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 논리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흔적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고자 한다. 첫째는 ‘율령체제’ 그리고 둘째는 ‘조공책봉체제’이다.

먼저, 율령체제란 전국시대부터 시행됐던 법치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진 대부터 수 · 당 대까지 약 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를 획일화된 법률로 다스릴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으며, 이후 8세기 한반도의 발해 그리고 일본은 당의 율령체제를 수용하여 각 나라에서 변용, 시행하였다.

1. 중국의 행정 구역 : 당의 지방 행정 조직은 도시를 주, **현** 그리고 농촌의 자치 구역을 **향**과 리, **촌**으로 나누었다. 현재 중국의 행정구조도 이와 유사하게 성급, 시급, **현급**, **향급**의 피라미드식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치 조직인 **촌**급도 있다. 또한 대만 지방 행정 제도의 하부조직에도 **향**이 존재한다.¹⁾
2. 일본의 행정 구역 : 나라 시대 때 율령제에서의 지방 행정 최하위 단위로 군 아래에 리(里)가 설치되었고, 몇 년 후에 향리제로 개정되었다. 즉 군을 향으로 개칭하여, 향 아래에 몇 개의 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후에 리가 폐지되고 향만 남아서, 현재까지 향을 지방 행정 최하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라카와 향 등이 있다.²⁾
3. 일본의 행정기관의 조직명 : 일본은 외교부, 법무부와 같이 한국의 ‘부’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성’을 쓴다. 예를 들어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등이 있다. 이는 나라시대의 2관8성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와 같은 율령체제를 포함한 많은 문화들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외교관계인 조공책봉체제 하에서 전파되었다. 조공책봉 관계의 발생에는 중화사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보통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책봉하고 그 국가들이 중국에 조공하는 형태를 띠었다. 즉 이는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였으나 피책봉국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관계로, 주종관계와는 엄연히 다른 실리외교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현대에서 일부 중국인들은 이를 왜곡하여 동북공정 혹은 서남공정을 추진한다. 그들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조공국들이 중국의 일부가 된 셈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역사를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³⁾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에도 동아시아 고대라는 아득한 과거의 유산을 차용하고 있을까? 이는 역설적으로 고대와 현대라는 시간적 차이 때문이다. 우리 인류는 고대에 만든 체제를 이후에 수정 혹은 변용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약 2천 년 간 수많은 체제들의 단점들을 몸소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는 과거 체제들의 이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선택적으로 차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참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중화인민공화국의_행정_구역

2) 참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향_\(행정_구역\)](https://ko.wikipedia.org/wiki/향_(행정_구역))

3) 동북공정, 서남공정 사상 또한 고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체제에서 비롯된 현상이기에, 현대에 남아있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흔적이라고 판단했다.